

# 文 “우즈벱의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독립유공자”

## 중앙포 3국 중 우즈벱키스탄 방문

‘한국문화예술의집’ 개관식 참석 가족가치 중심, 보수층에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벱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이번 문 대통령 순방은 국내 보수층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주장이 정계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벱키스탄 동포 오찬간담회 때 “우즈벱키스탄은 처음(방문)이지만 낯설지 않고 가족 같은 나라, 형제 같은 나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 고려인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훈장과 포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이고 독립유공자”라고 했다.



우즈벱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문화예술의집 전시장에 전시된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감상하는 모습. /청와대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서 매우 뜻 깊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즈벱키스탄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자리 잡은 여러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고

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사상 첫 우즈벱키스탄 의회 연설을 할 때도 “1937년 극동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벱키스탄으로 이주할 때, 우즈벱키스탄 국민들은 고려인들을 따

뜻하게 품어줬다”며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즈벱키스탄의 ‘하샤르 정신’에 힘입어 고려인들도 우즈벱키스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벱키스탄 내 ‘한국문화예술의집’ 개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미르지오예프 우즈벱키스탄 대통령도 동석했다. 한국문화예술의집에는 고려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됐고, 작품 중에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초상화가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보며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최고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특히 우즈벱키스탄 순방에서 보여준 행보는 고려인들을 만나는 게 인상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국내 보수층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려인 역시 우리의 가족이다. 문 대통령이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즈벱키스탄에 앞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 등 역대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이미션 후폭풍... 입법·추경 등 ‘가시밭길’

정부, 25일 추경안 국회 제출 계획 자유한국, 文 정권 규탄 장외집회 여야3당 비난에도 대여투쟁 결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션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로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안 제출에 합의, 5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지지자 2만여명(한국당 추산)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실시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집회는 문 대통령의 이미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했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집회 참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한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자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성토했고, 이후에도 강경한 대여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살포, 국민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며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까지 1만3300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 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총선승리 위한 변화·통합의 대표 될 것”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 출사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1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사실상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자리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 의원을 뽑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번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출마는 총선 승리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이라며 “총선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민심의 경고를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낡은 관념과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미드필더가 돼 중원으로 나가 경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의 극우정치는 족보였고, 잘못하면 자신들을 파멸로 한순간에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5일 우즈벱키스탄 타슈켄트시 산업단지에서 한-우즈벱 농기계R&D센터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정부, 중앙포 거점 농기계 수출 확대나서

우즈벱에 농기계R&D 센터 개소

가졌다.

최근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수출 확대에 나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벱키스탄 국빈방문에 즈음해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벱키스탄 농기계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을

이 센터 조성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돼 4년 만에 완료됐다. 한국은 농기계 장비 구축, 교육훈련 등 66억원을 지원하고, 우즈벱키스탄은 건물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센터를 활용한 양국 공동 농기계 개량, 기술교류, 합작생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국무역協-OKTA, 수출확대 MOU

수출 초보기업에 판로모색 등 2021년까지 100개 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서울 트레이드 센터에서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OKTA 회원사(21개국 7000여개)들은 무역협회(회원사 7만4000여개)와 손잡고 수출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 수

출초보기업에 해외바이어발굴, 판로모색, 수출대행 등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OKTA의 우수한 회원사를 선별해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0개사 이상의 해외동포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옥타 회원사는 비즈

니스 수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통한 기업의 수출축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에서 활약중인 OKTA 회원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약 17억달러 규모의 수출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